

#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드는 빈부격차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양극화 사회, 교실로 스며든 빈부격차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는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에 관한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평등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안은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을 통해서 더욱 공고화된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을 꿈꾸는 계층과 그 욕망조차 가질 수 없는 계층이 공존한다면 공동체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급속도로 격차 교육이 강화되는 현재 상황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모두가 동등한 교육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격차만큼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사교육과 시장의 격차를 공교육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적 결과는 개인보다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인하는 바가 큼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능성으로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결국 국가의 몫입니다.

국민여러분께, 교육불평등지도를 보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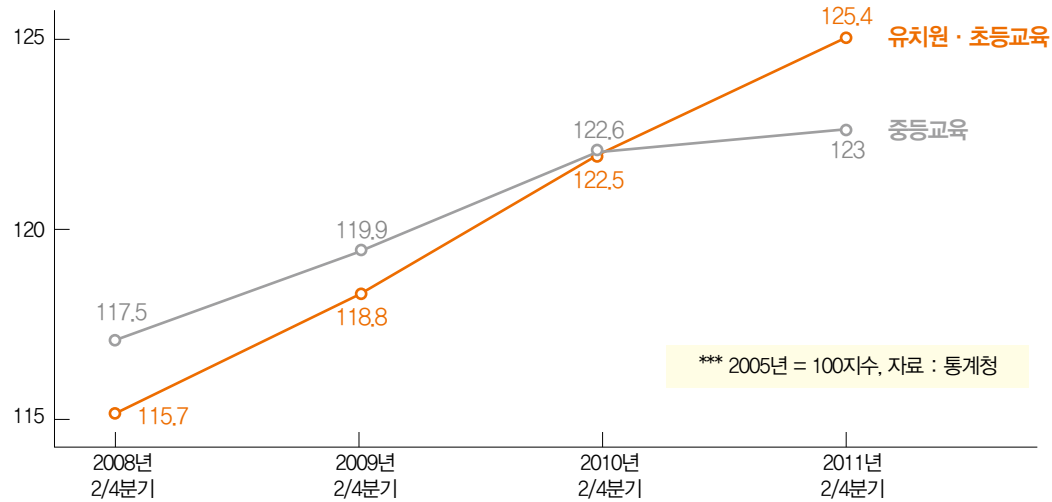


## 글심는 순서

이명박 정부 4년, 고통받는 교육 현장 . . . . .	3
지역별 수능 점수 격차, 소득과 선발효과 . . . . .	5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 . . . .	7
우리 동네 외고 유치? 입학생은 외지인 . . . . .	9
빈부격차, 교실에서 재생산된다 . . . . .	10
강남 학생 수출, 그들만의 치열한 경쟁 . . . . .	11
교육격차 확대 하는 MB정부 . . . . .	12
외고 위의 외국인 학교 . . . . .	13
격차교육, 대학까지 확대 . . . . .	14
공교육, 귀족교육 . . . . .	15
격차사회, 교육격차가 취업으로 . . . . .	16
소득격차가 키, 몸무게의 격차까지 . . . . .	17
아동 청소년 정서질환, 소득이 낮으면 더 많이 걸려 . . . . .	18
교육발전을 위한 5대 제안 . . . . .	19

# 이명박정부 4년, 고통받는 교육현장

| 초·중등 교육 물가 지수 |



| 초·중학생 학원 수강자수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초·중학생 학원수강자수(명)	796,059	798,894	833,978	861,126	952,829	957,614
초·중학생수(명)	3,925,043	3,829,998	3,672,207	3,474,395	3,299,094	3,132,477
학원수강자 비율(%)	20.3	20.9	22.7	24.8	28.9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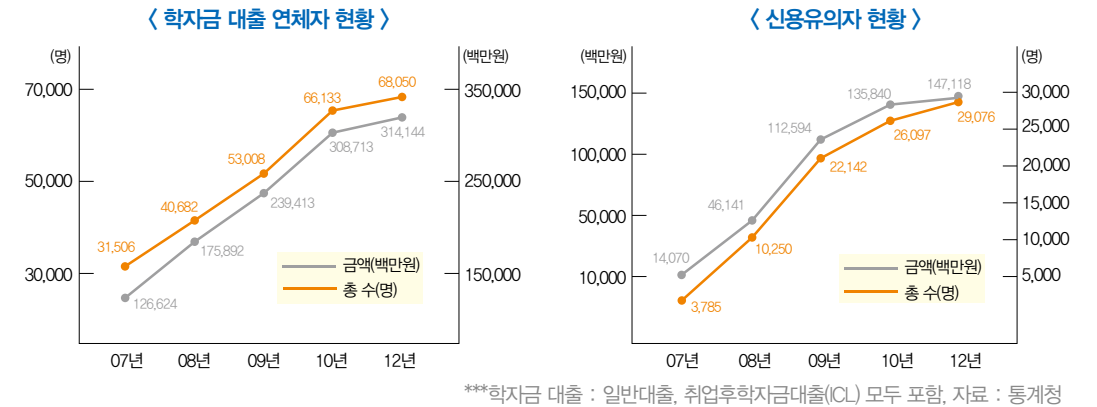
MB정부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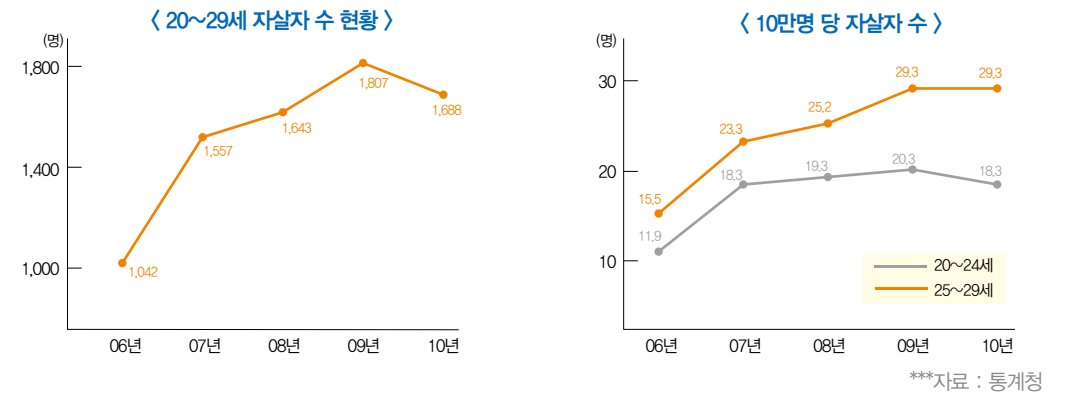
| 대학 휴학자수 |

년도	휴학자			대학 재적학생수(B)	일반휴학 비율(A/B)
	계	일반휴학(A)	군입대		
2008	548,919	389,187	159,732	2,402,150	16.20%
2009	580,835	423,020	157,815	2,427,662	17.40%
2010	600,845	436,338	164,507	2,456,647	17.80%

| 신용 유의자수 변화 |



| 청년 자살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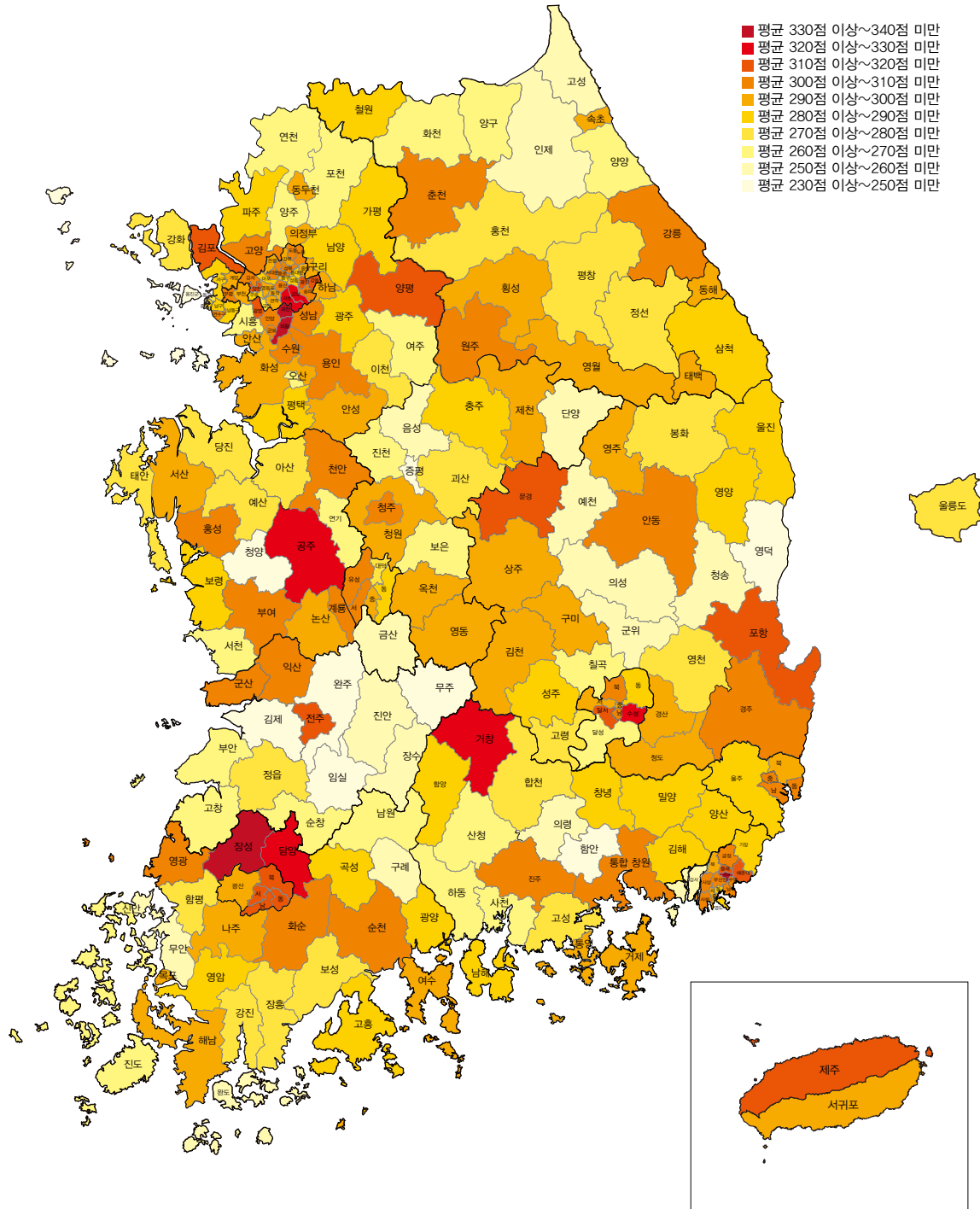
다양성과 자율을 내세우며 출범한 MB교육 4년, 교육은 성장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과 경쟁의 장이 되었고, 다양성이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 사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계속되는 시험의 노예가 되어 학원으로 달려갔고, 학부모는 늘어나는 교육비에 허리가 휘었다.

대학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며 시간강사는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게될 위기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교육이 아닌 엄혹한 시장에서 생존경쟁을 벌인 4년이 바로 MB교육 4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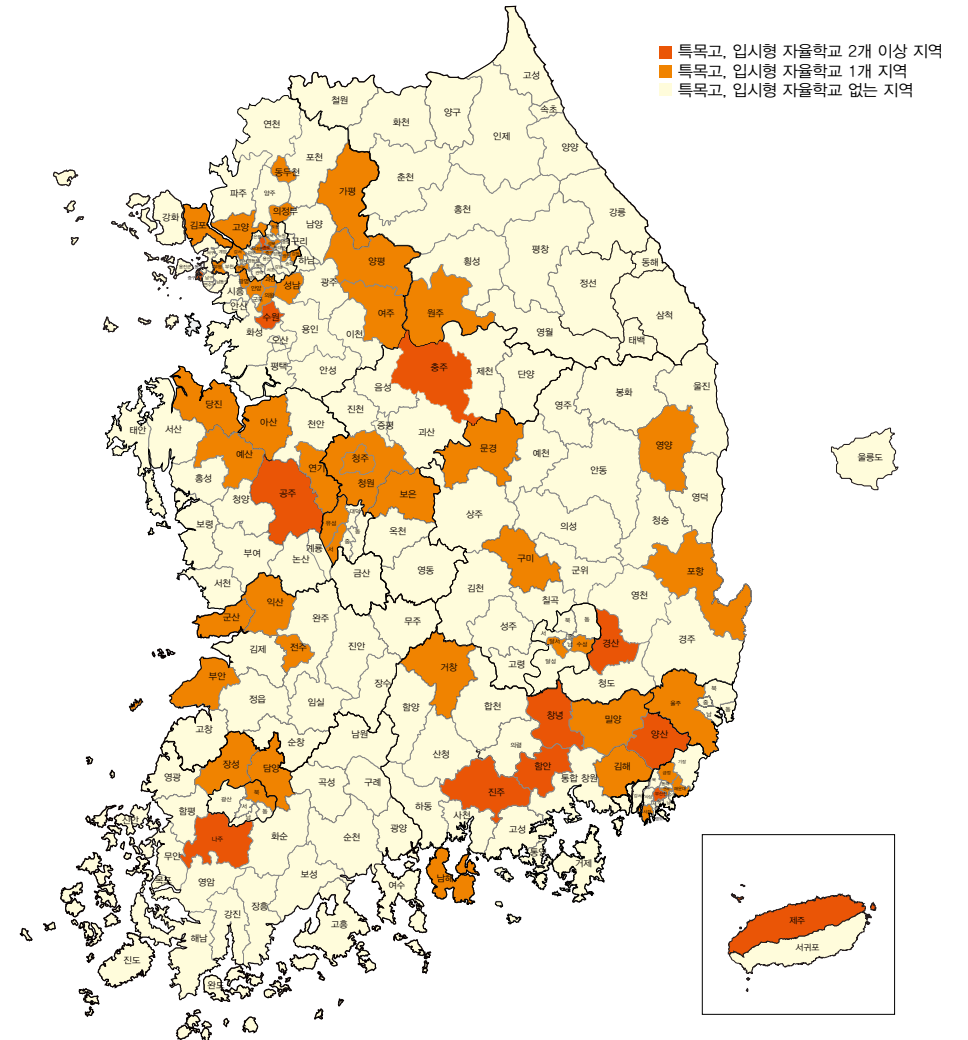


# 지역별 수능 점수 격차, 소득과 선발효과

| 2011 수능 표준점수 평균 |



| 외고 등 특목고, 전국 및 광역단위 자율학교 있는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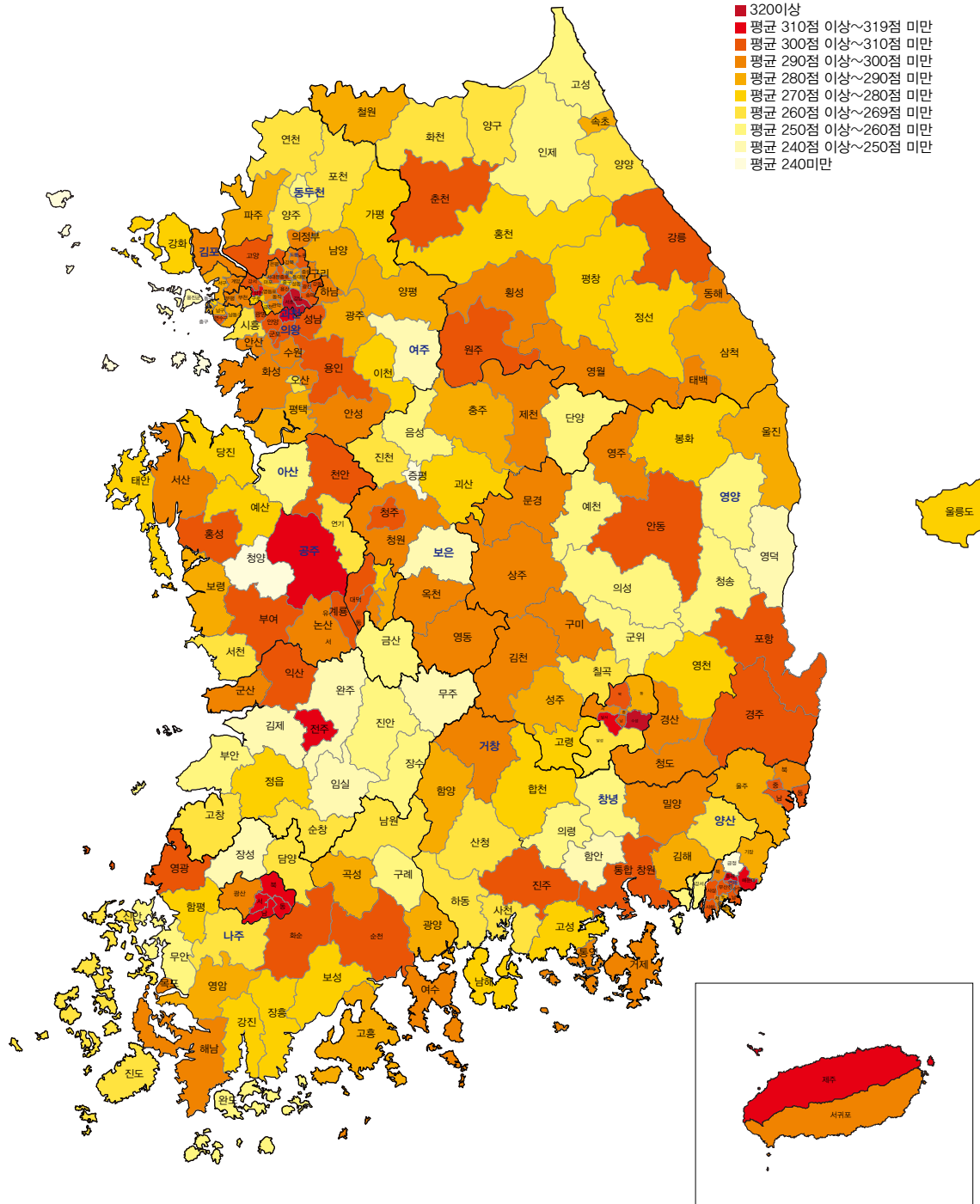


지역별 수능 점수는 소득이 높은 지역, 특목고 및 전국/광역 선발 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이 높다. 집값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과 지역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성적이 높은 지역은 학생들을 전국/광역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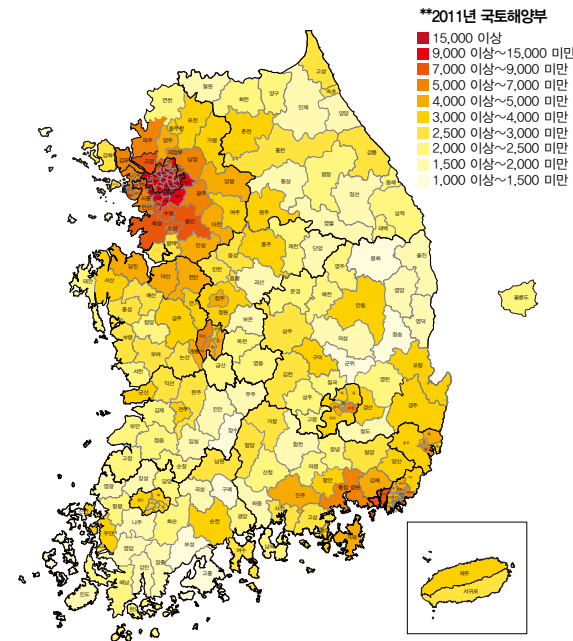
'선발효과'라는 말이 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그 학교의 성적이 잘나는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전국/광역단위 선발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지역의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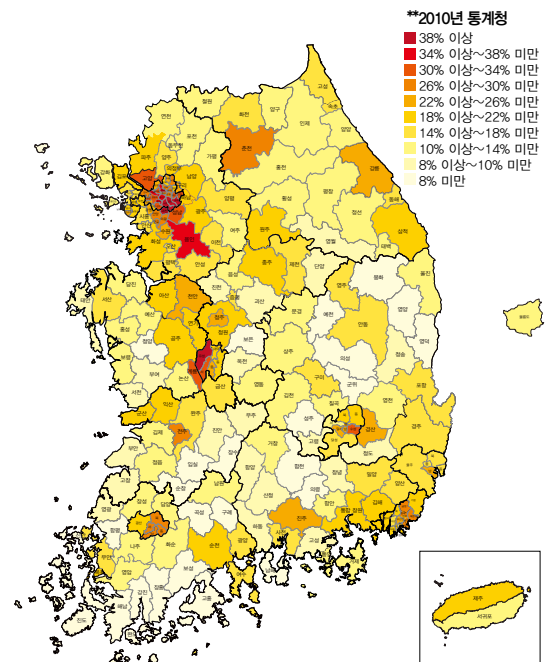
| 외교 등 특목고, 전국 및 광역 단위 자율학교 있는 지역을 뺀 2011년 수능 표준 점수 |



| 집값 지도\_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지가 |



| 부모학력지도\_ 지역별 대학 졸업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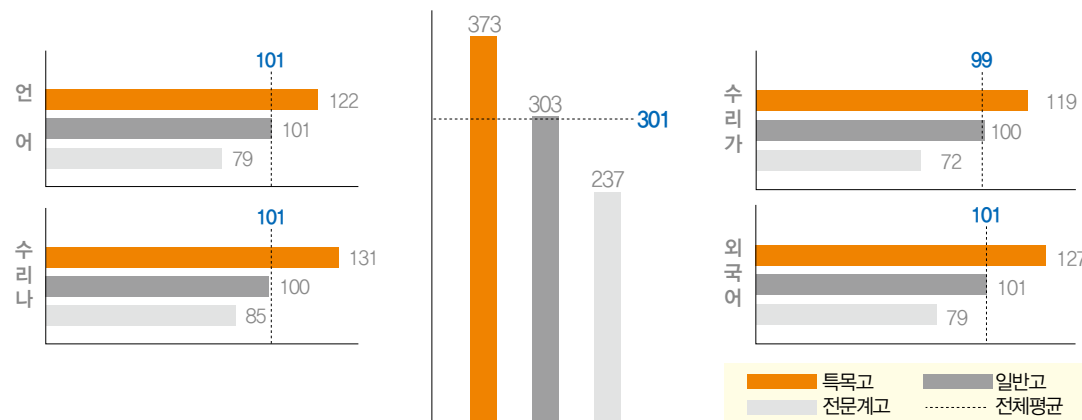


선발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소득에 따른 성적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집값과 부모의 학력지표를 나타내는 지도와 비교해보면 지도의 등고선이 비슷하다. 학력격차→소득격차→학력격차의 재생산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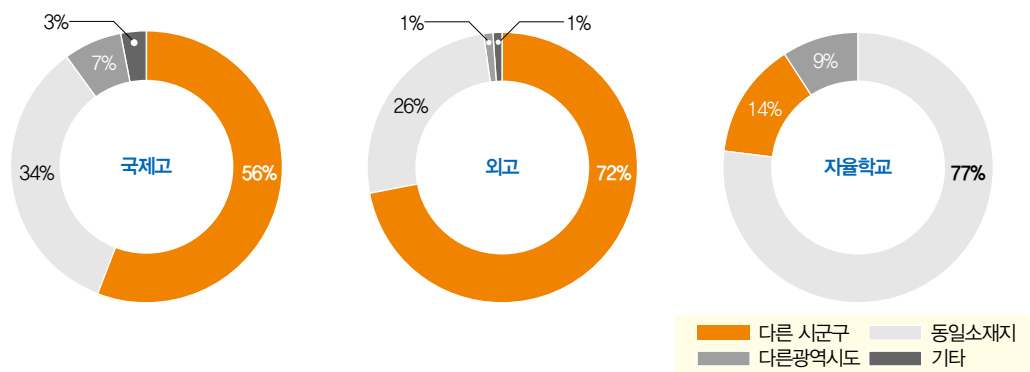
전국/광역모집 학교가 있는 지역의 착시효과는 분명하다. 전남 J군의 경우 수능 표준점수 평균이 337점이었으나, 광역단위 모집인 한 학교의 선발효과를 제외하면 표준점수 평균이 243점으로 무려 93점이 떨어진다. 전남 J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그 지역의 성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 우리 동네 외고 유치? 입학생은 외지인

| 2011년 학교 유형별 수능 표준점수 |



| 학교 유형별 입학생 외지인 비율-2011년 신입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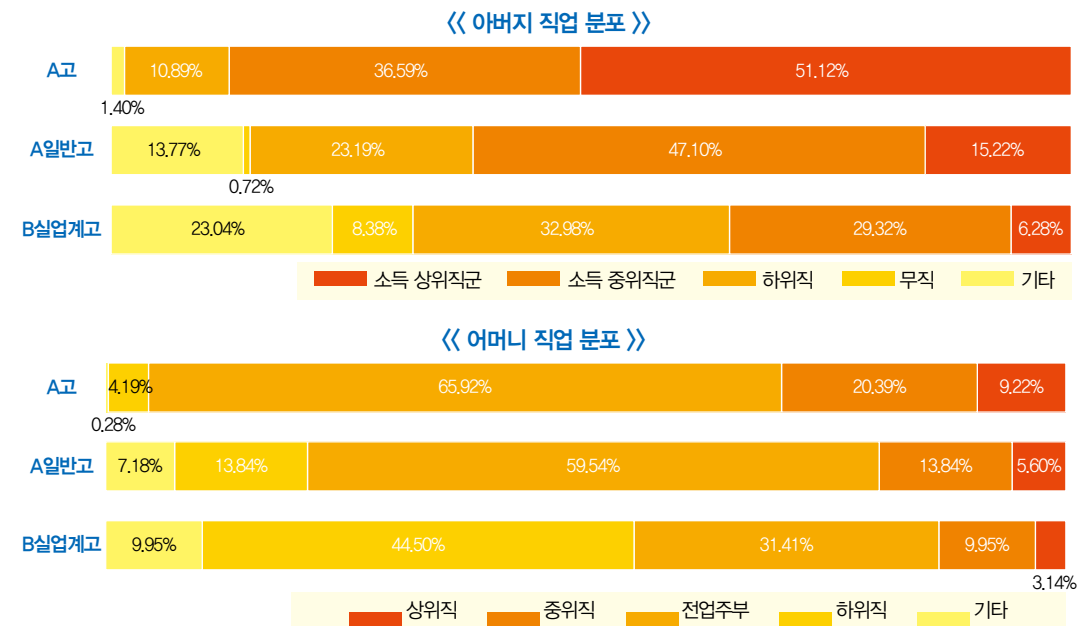


우리 동네에 외고가 유치되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외고 등 특목고의 수능 점수는 일반고에 비해 70점 이상 높다. 하지만 우리 동네의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

특목고가 높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기 때문이다. 외국어고 학생들 중에 3/4 가까운 학생은 외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다.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한 자율학교는 성적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인데, 입학생 480명중 그 동네 출신 학생은 단 3명에 불과하다.

## 빈부격차, 교실에서 재생산된다

| 학교 유형별 학부모 직업 차이 |



| 등록금 및 수이자부담경비 격차 |

구	학교명	학생수	등록금	수이자부담 교육비	1인당등록금	1인당 수이자부담 교육비	1인당 등록금 및 수이자부담 교육비
A구	A고	937	4,149,556,680	2,948,753,470	4,428,556	3,147,015	7,575,571
	J일반고	1903	2,430,672,060	1,413,740,451	1,277,284	742,901	2,020,185
	K실업계고	792	541,374,000	417,123,000	683,553	526,670	1,21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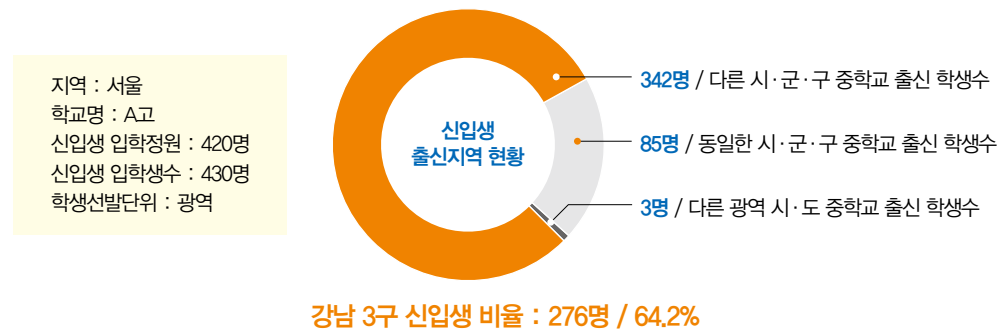
\*\*\* 2010년, A구에 위치한 외고, 일반고, 특성화고 조사

서울지역 A구에 위치한 외고, 일반고, 특성화고를 비교했다. 외고의 경우 아버지의 절반이 전문직 최고 경영자 등 고소득자였고, 특성화고의 절반이 넘는 아버지는 저소득층과 무직자였다. 뿐만 아니라 외고의 어머니 전업 주부 비율은 65.9%로 애드맘의 역할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입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특성화고의 어머니 2/3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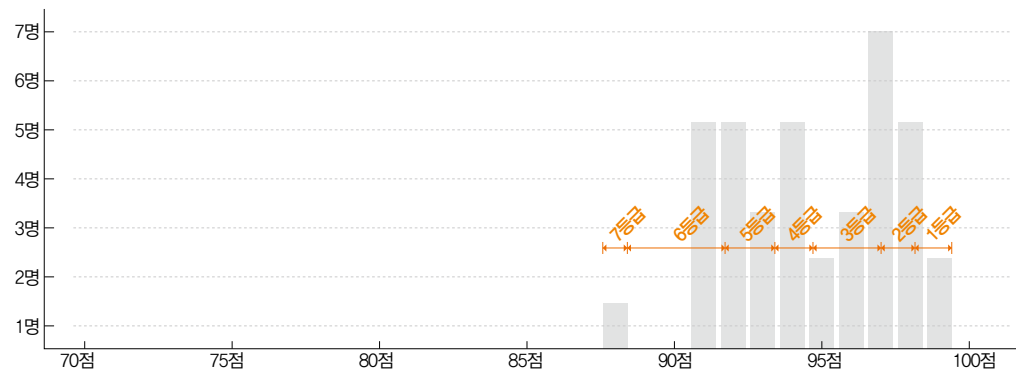
사교육을 제외한 공교육비에 드는 비용만 해도 외고와 일반고는 3.5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다. 특성화고와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가난하면 고등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구조, 결국 돈이 없는 부모들은 은연중에 자녀의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다.

## 강남 학생 수출, 그들만의 치열한 경쟁

| A외고 강남 출신 비율 |



| A외고 1학년 국어시험 점수 및 등급 |



한 외국어고등학교의 강남3구 출신 비율은 64.2%에 이른다. 그 지역의 우리 동네 아이들은 불과 20%에 불과하다. 강남 학생들이 동네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진학률이 더 좋은 학교를 찾아가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도 행복하지만은 않다. 99점이 1등급인데, 91점이 6등급이다. 치열한 경쟁, 1~2점에 등급이 달라지고, 대부분 90점 이상에서 뺄셈을 서 있다. 맞추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틀리지 않기 위한 경쟁에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극도로 심해진다. 창의적 사고는 먼나라 이야기다.

## 교육격차 확대 하는 MB정부

| 서울시내 전기·후기고 입학생 수 변화 (단위:명) |

구분		09학년도	12학년도	증감
전기고 (예체능, 특성화고 제외)	외고	2170	1984	-186
	국제고	-	150	150
	과학고	420	420	0
	자율형사립고	-	10627	10627
	합계(A)	2590	13181	10591
후기고	일반고	96460	82104	-14356
총계(B)		99050	95285	-3765
전기고 비율(A/B)		2.60%	13.80%	+11.2%p (4.3배)

| 자율형 사립고 부모직업소득 및 등록금 |

조사시기	조사대상	학생수	직업분류				
			고소득직	중소득직	저소득직	무직	기타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2009.4	자립형사립고	907	50.3%	36.3%	8.4%	0.0%	5.1%
2010.4	외국어고	2278	43.5%	43.4%	10.1%	0.1%	2.8%
2010.4	자율형사립고	4757	25.1%	42.3%	14.7%	0.4%	17.6%
2009.4	일반고	2852	13.1%	42.8%	28.4%	0.3%	14.4%
2009.4	실업계고	1577	3.7%	34.1%	32.4%	0.2%	29.8%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등록금			4,464,557	1,783,754	1,783,754		

MB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이러한 격차교육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목고, 일반고 사이에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와서 특목고-자율형사립고-일반고-특성화고로 이어지는 고등학교 계급이 생겨버렸다. 서울지역의 전기고 학생 비율은 3년간 무려 5배나 늘어, 일반고는 점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MB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따라 학교 공교육비도 차이가 났다.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배로 뛰었고, 그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소득 수준 또한 일반고와 외고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어릴때부터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계층분리 교육이 MB정부 이후 심화되고 있다.



## 외고위의 외국인 학교

| 수도권 외국인학교 내국인수 및 강남 3구 학생비율 |



총 18개교 7374명 | 내국인수 : 2319명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학생 799명, 내국인 중 비율 : 34.5%

\* 2011년 7월말 현재 초·중·고교교육법 상 영미계 외국인 학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 외국인 학교 등록금 현황 |

학교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기타비용	총등록금 평균(단위:만원)	
	초등	중등		초등	중등
26개교	1728	1916	323	2019	2217

\* 2011.7.22 고시 환율 기준

\* 기타비용: 입학금, 행정비, 커리큘럼비, 급식비, 교통비, 기숙사비 등 기타 수익자부담경비(선택사항도 포함되어 계산됨)

-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학생 비율도 MB정부 이후 늘었다. 수도권 영미계 외국인학교 학생 중 1/3 정도 내국인이었고, 그 내국인의 1/3이 강남3구 출신 학생이다. 강남3구는 외국인학교의 연간 2천만원이 넘는 등록금 등을 지불하면서도 학생들을 수출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또 다른 특권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다.

## 교육격차, 대학까지 확대

| 2011년도 대학 입학자 중에서 외고 특목고 비율(서울소재 사립 종합대학) |

《 서울소재 사립 종합대학 중 특목고 출신 입학생이 많은 대학 TOP10 》

이화여자대학교	942명 / 3263명 (특목고출신 / 입학정원)	28.9%
연세대학교	1065명 / 3940명	27.0%
서강대학교	431명 / 1903명	22.6%
고려대학교	917명 / 4190명	21.9%
한국외국어대학교	390명 / 1973명	19.8%
한양대학교	642명 / 3292명	19.5%
성균관대학교	685명 / 4110명	16.7%
숙명여자대학교	323명 / 2478명	13.0%
경희대학교	306명 / 2729명	11.2%
중앙대학교	315명 / 2886명	10.9%

《 2010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외고생 합격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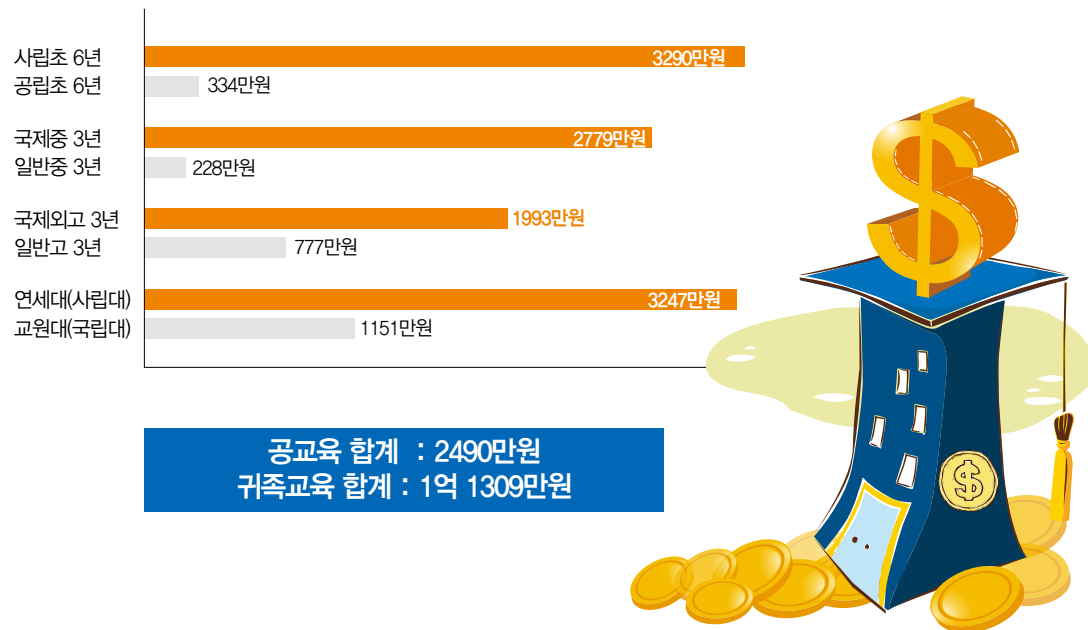
	64.2%
--	-------

- 초·중고에서의 교육격차는 대학으로 이어진다. 지난 2009년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보듯이 명문 사립대의 특목고 학생 우대 경향은 분명해 보인다. 특목고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의 외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생 수는 무려 6천명이 넘는다. 참고로 1년에 외고를 졸업하는 학생수는 8,500명 수준이다.



## 공교육, 귀족교육

| 공교육과 귀족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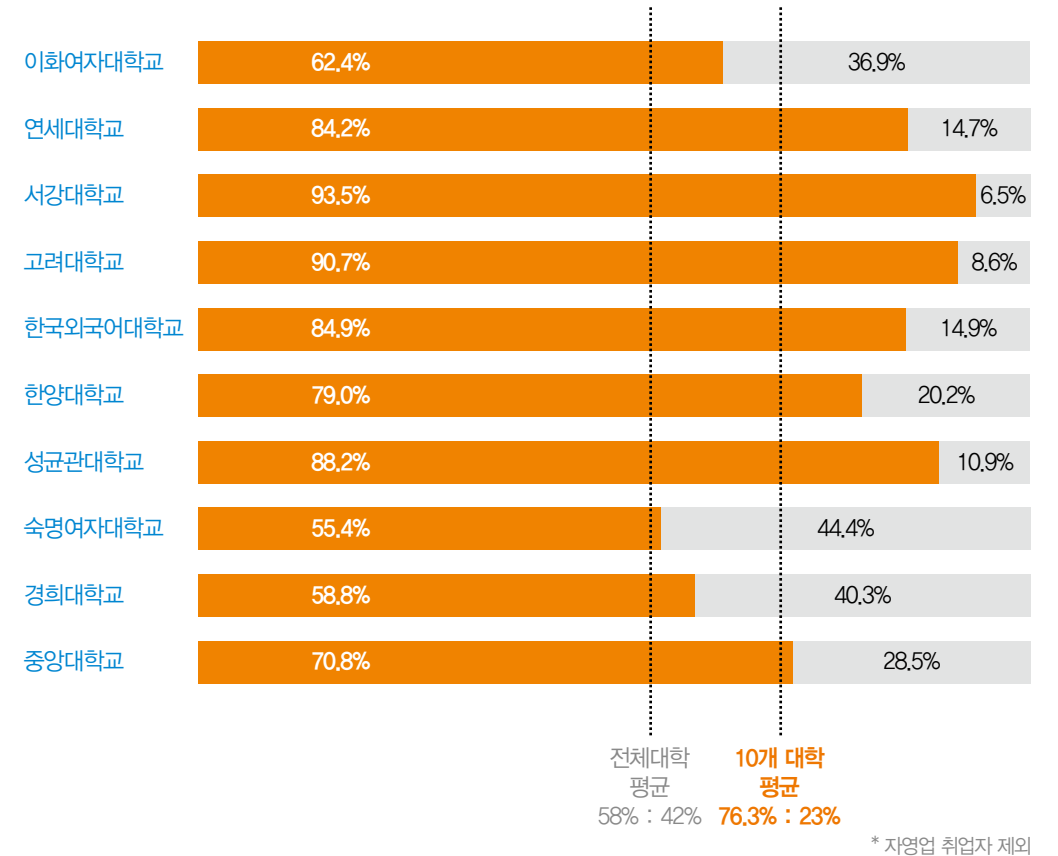
| 특목고 출신 신입생 비율 높은 사립대 등록금 현황 (2011년도) |

학교명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한국외대	한양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경희대	중앙대
등록금 (단위 천원)	8,690.3	8,676.7	8,141.3	8,415.4	7,280.5	8,524.1	8,508.2	8,166.7	7,411.2	7,986.0

교육격차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의 진로와 가능성이 어린나이에 정해지게 되면 사회는 역동성을 잃는다. 보통의 공교육 체제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경비는 12년간 2,500만원 정도이다. 반대로 귀족특권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1억 1,300만원 가량으로 공교육 받는 학생의 4배가 넘는 등록금을 낸다. 특목고를 좋아하는 사립대 학들의 등록금이 전체 사립대 평균 등록금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높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 격차사회, 교육격차가 취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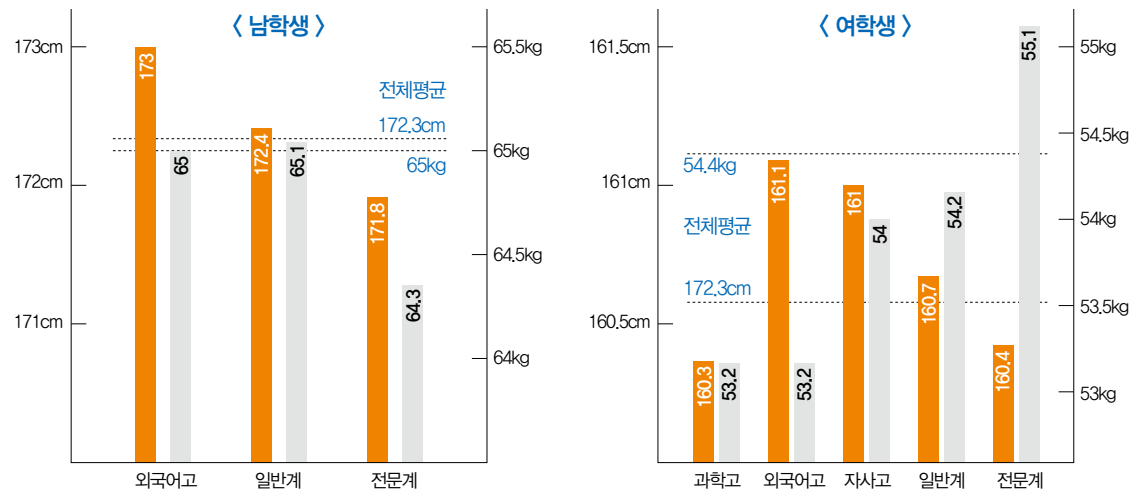
| 취업자중 정규직 비율 - 전체 평균 및 유명 사립 10개 대학 |



명문 사립대의 정규직 취업률은 전체 평균인 58%보다 18%나 높은 76.3%에 이른다. 여대를 제외하고 나면 정규직 취업률이 81%가 넘어서 전체 평균보다 정규직 비율이 23%나 높다. 경제적 격차와 교육의 차이가 고스란히 취업과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 소득격차가 키, 몸무게의 격차까지

| 학교급별 키, 몸무게 현황 |



| 여고생 상대체중 비율 |

	외국어고	일반계	전문계	모든고교
1학년	5.6	11.2	14.5	11.9

\*상대체중 = 경도비만 + 중등도비만 + 고도비만 학생 비율

- 부모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학교가 키도 크다. 남자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며, 여자들은 키가 크고 몸무게도 적게 나간다. 소득격차가 학생들의 체격 차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은 특성화고 여학생들 중에 비만자 비율이 많다는 점은 성장기 때 양질의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것 또한 소득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 아동청소년 정서질환, 소득이 낮으면 더 많이 걸려

| ADHD 등 아동 청소년 정서질환 계층별 비교 |



질병명	세대구분	08년	09년	10년	08-10년 증가율	10년 상위 50만가구 대비 격차
행동 및 정서장애	의료급여자	151.9	202.4	188.4	24.00%	1.6배
	상위50만가구	140.7	144.4	119.7	-14.90%	-
기분(정동)장애	의료급여자	66.1	92.1	96	45.20%	1.8배
	상위50만가구	64.2	63.2	52.3	-18.50%	-
정신발육 지연	의료급여자	77.2	100.6	92.1	19.30%	13.2배
	상위50만가구	8.4	8.9	7	-16.70%	-
정신발달 장애	의료급여자	47.2	55.8	46.9	-0.60%	2.1배
	상위50만가구	26.1	25.8	22.6	-13.40%	-

\*의료급여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상위 50만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 상위가구

- 학습능력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서질환 장애 발생 비율이 소득별로 갈라진다.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가 결국 교육의 격차로 나타난다. 가난한 의료급여자의 질환 환자 수가 상위가구에 비해 1.6배~13.2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다.

# 교육 발전을 위한 5대 제안

## 01

###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 교육 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불평등을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재정조달방안, 학교간, 지역간, 학생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불평등해소 중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
-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불평등해소 우선학교를 지정하고 교육불평등해소 사업을 실시



## 02

### 고교 및 대학입시 완화, 장기적 폐지를 위한 대안

- 일반고-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로 구분되는 계층분리교육 체계 폐지
- 대학은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지방과 저소득층 학생 선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
- 공교육 체제를 흔드는 3불(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유지, '외고우대전형' 등 편법입학 전형 엄중 규제



## 03

### 공교육 투자 확충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급식비,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교사당 학생수를 15명 내외로 감축, 적극적인 교원 정원 확대정책 시행,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및 학생 생활지도 전문인력 확충
-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예산 우선 배정



## 04

### 등록금 문제 해결 및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도입 등 정부책임 등록금제 시행. 반값 등록금을 넘어, 고등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편입
- 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 투입비율(GDP대비 1.2%)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 투입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완. 이자율 감축 및 청년 실업자에 대한 배려 확대
- 고등교육기관 법정교원 비율 확대.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 05

###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 협의체 구성

-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발전 협의회 구성. 교육 혁신은 입시제도 혁신 문제는 물론,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시도교육감 및 대학교육협의회, 경제인 단체 및 노동계 단체, 시민사회와 유관 부처가 함께 교육발전 협의체를 구성함
- 중장기 교육혁신 모델 제시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정부 기구가 필요함





2011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양극화사회, 교육의 사다리를 놓자